

# 4월2일 조계종 새종정 추대

조계종 최고권위의 상징인 종정을 추대하는 역사적인 회기가 4월 2일 열린다. 종정은 부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불가의 최고 어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다. 종헌에서는 '종정은 본종의 신성(神聖)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정의 추대 절차는 종헌과 원로회의법에 따른다. 종정은 원로회의의 의원, 총무원장, 호계원장장 중앙종회회장이 추대하며... 추대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종헌 21조 1, 2항) 원로회의법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으나, 31일까지 회기를 연장해 열리는 138회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바뀌 종헌과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한다.

종정 추대를 위한 회의는 종정의 임기 만료 3개월 전이나 유고시에 원로회의 의장(현 의장 해암스님)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30일 열린 승려대회에서 월하스님이 불신임되어 종정은 유고상태다. 또 불신임과 관계없이 월하스님의 임기가 5월 12일까지이므로 이번 회의소집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해암스님 서용스님 석주스님 관응스님

## 해암-서용-석주-관응스님 물망

원로의원·총무원장 등 25명 추대위 구성

종정 유고시의 추대 시기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현재 원로의원은 22명이므로 추대위원은 모두 25명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원로회의법 중 원로의원 자격을 현행 '연령 6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80세 이하'로 개정하고, 4명을 새로 추천해 원로의원이 되면 1명이 줄어 24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종정의 자격은 승납 45년 이상, 연령 65세 이상, 대중사의 법계여야 한다. 임기는 5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종정은 전계대화상 위촉권을 가지며,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을 행할 수 있다. 원로회의의 제정으로 종양종회를 해산할 수 있다.(종헌 20~24조) 원로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종정 추대를 위한 회의는 비공개로 해왔다. 추대의 방식이므로 후보가 나가지 않는다. 추대위원들 사이에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이 상정되면 추대위원 중 한 위원이 '어른'을 거명하면 토론이나 반대없이 모두 동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종헌에는 '추대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만장일치로 종정을 모셔왔다. 이번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계종 10대 종정에 추대될 스님으로는 현재 원로회의 의장 해암스님(79), 5대 종정을 역임한 백양사 방장 서용스님(87), 94년 개혁회의 의장을 지낸 철보사 조실 석주스님(90), 직지

사 조실 관응스님(89) 등이 떠오르고 있다. 해암스님은 94년 당시 의현 총무원장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 데 이어 지난 해 조계종사태 때도 '종헌중립 준수'를 선언해 종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굳은 일을 마다않고 나선 어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산 총무원장과 같은 범어종이어서 문종편중에 대한 경계론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용스님은 한국불교 최고의 선지식이라는 추앙을 받고 있다. 지난 해 무차선회 및 국제선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고령에도 불구하고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0년대에 종정을 이미 지냈으며, 고령이라는 점이 재추대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종정 추대 때마다 빠짐없이 거론되는 석주스님은 온화한 인품과 포교·사회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종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총무원장을 세 번, 중앙승가대학장, 포교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큰 산중에 주석하지 않았으며, 거론되는 원로스님 중 가장 고령이라는 것이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관응스님은 한국불교 최대의 강백이자 선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령임에도 직지사 산내암자인 중앙에 주석하며 법을 청하는 신도들을 뿌리치지 않고 맞아 들인다. 그러나 중앙종회를 주도하고 있는 법통스님(직지사 부주지) 등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 조계종 종회 '사설사암 문제' 해결 촉구

5백여사찰 미등록 추산  
종헌준수 풍토 절실

조계종 139회 임시총회의 집행부 질의의 쟁점은 사설사암(私設寺庵)의 종단등록 및 법인의 조계종 관장을 규정한 종헌 9조 3항의 준수 촉구였다. 총무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부각됐다. 성관스님은 질의에서 백련문화재단을 예로 들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택스님은 "개정 정관에 따라 임원을 개편해 등기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장곡스님은 "교구 총무원들 가운데 9조 3항을 위반한 스님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총무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원택스님은 또 "사설사암의 종단등록을 권유하기 위해 신문에 공고해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 소속 스님들이 건립한 사찰은 1천8백여개이나, 종단과 행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찰은 1천1백여개이다. 90년 이후 종단등록 촉구가 강화되면서 등록 사설사암이 늘었으나 재산등록까지 마친 사찰은 2백여곳 뿐으로 아직도 미등록 사설사암은 5백여개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헌의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분단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모종의회의원인 사설사암 종단 미등록으로 종회원의 자격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다. 신학원 등 법인의 종단등록을 유도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실제 파악과 함께 현재 드러난 문제부터 종헌에 의거해 처리해 '원칙'이 확립되는 종단 등록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 조계종 '화합의 봄' 오는듯

초심징계자 6명 재심청구 '의의'

고산 총무원장, 종회에  
영축총림 해제 보류 요청  
통도사 기자회견 취소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표출된 승가내의 첨예한 갈등양상이 최근 정점을 넘어 하강곡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초심징계자의 재심청구,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영축총림 해제 보류 요청' 발언에 따른 통도사측의 기자회견 취소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심징계원에서 멀빈의 징계를 받은 스님 가운데 월탄, 성문스님을 제외한 현호, 원학, 법일, 현소, 현근, 정우스님 등 6명의 재심청구서 제출의 의미는 작지 않다. 현 총무원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정화개혁회의의 강경한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를 둔 것이다. 더구나 정화개혁회의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스님들의 재심청구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려 있다. 정화개혁회의의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새로운 국면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불교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화합의 분위기로 맞아야 한다는 불자들의 바람이 이뤄질 것인가. 그러나 아직은 징조만 감지될 뿐이다. 화합을 위한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이것이 많은 종도들의 평가다.

정성운 기자

##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을 밝히시다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쩍새마을. 이곳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쩍새마을은 현재 강원도 횡성군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쩍새마을의 보금자리 건설봉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울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하나를 밝혀 동체대비의 무량 복정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 △ 동참비: 1인당 1만원
  -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 △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음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 △ 접수기간: 3월31일~5월 21일
  - △ 입금계좌
    - 한빛은행 059-170968-13-001
    - 신한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체국 011809-0332390
    - 농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 ※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후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태교를 중요시 했다. 석성우스님의 저서 <태교>에 이런 말이 있다. "임신했을 때 가졌던 부모의 마음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임신부가 마음과 몸을 바르게 갖지 않을 수 없는 법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행실이 그대로 태어날 자식에게 전이된다는데 어느 예비부모가 착하고 단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요즘 부모들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이야기가 화제로 오르내리고 있다.

경우 2000년 1월 1일 0시에 태어날 수 있는 아기들은 3천여명이다. 병원 밖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날 밀레니엄 베이비 1호는 염두에 두지 않은 계산이다. 오히려 그런 아기를 찾아 선물을 전하는 것이 더 순수하고 병원 홍보도 되지 않을까.

새 천년 새 세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뜻은 좋지만 지나치면 호들갑이 된다. 그리고 내년은 단기 4333년이다. 이 기회에 우리의 연호도 한번쯤 되새겨 보자.

심신한 생령탄생에 상흔과 욕심 그리고 흥미마저 깃들면 태교가 무색해진다. 태교를 잘 지키는 것은 개인은 물론 나라의 희망을 기우는 일이다. 착하고 건실한 아들·딸들이 태어날 테니까.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다. "업이 보(報)를 어기지 않고 보가 업을 어기지 않는다." 밀레니엄 베이비 1호를 꿈꾸는 이들에게 주고픈 가르침이다. 석성우스님의 태교시 '하늘 맑은 날의 일부도 돌려주고 싶다.' "마음과 마음이 맑아야 하나니 하늘 맑은 날에 씨앗을 묻으소서 여명이 누리 갈밭 때 씨앗 받으소서 욕망은 욕망을 낳나니 피와 피가 하얗도록 참회하소서"

병원들의 '뉴 밀레니엄 베이비 1호' 경쟁전이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2000년 1월 1일 0시에 태어나는 아기에

밀레니엄 베이비

친권, 분유, 기자귀를 선물하기로 했다. 강남 차병원도 여기에 부모선물과 유아용품을 얹었다. 일부 병원은 뉴밀레니엄 첫아기 '임태지침'을 내놓았다고 한다.

어느 병원에는 밀레니엄 베이비 1호를 낳는 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하루에 20~60통에 이른다고 한다. 미끼를 던진 병원의 홍보에 예비부모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는 3천여명이다. '임태지침'에 따른 임신부들이 병원으로 몰려가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 나설

## 通度寺聖寶博物館 開館 法會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지난 1987년, 통도사를 찾는 이들에게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보여 준 성원과 격려는 시찰 박물관의 가능성을 무한히 일깨워 주었고, 나아가 대중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의 신축 박물관 건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994년 신축 공사에 착공했던 저희 박물관이 이제 5년이라는 긴 役事를 마치고 마침내 개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도사성보박물관 개관법회>를 봉행하오니 부디 왕림하시어 이 역사적인 회향법회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靈鷲叢林 通度寺 住持 月 把 合掌

❖ 일시 : 1999년 4월 11일(일요일) 14:00  
❖ 장소 : 양산 통도사 내 성보박물관 앞 광장

靈鷲叢林 通度寺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 0523)382-1001, 384-0010 / 팩스 : 0523)384-0030

###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 운영안내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문화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불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의 전통문화 및 박물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전통공예를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개인의 취미와 소질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박물관대학 및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박물관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145명(선착순)
- 모집대상 : 전통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의 남녀
- 수강기간 : 1999. 4. 23~ 2000. 2(매주 금요일, 3시간 강)
- 강의내용 : 역사학 · 고고학 · 미술사학 · 민속학 · 불교미술 등 한국의 전통문화 전반
- 수강료 : 330,000원

#### 제1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각 분야별 30~50명
- 모집대상 : 전통공예를 실생활에 활용하고 싶은 20세 이상 남녀
- 수강기간 : 1999. 4. 26 ~ 1999. 7. 28(3개월간)
- 개설분야 : 사진영상반, 한지공예반, 서각공예반, 불화그리기반
- 수강료 : 각 분야 별 100,000원

※ 자세한 문의는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로 연락주시십시오 ※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23)384-0020 / 팩스 : 0523)384-0030